

건설경기 좋아졌다지만 ... 봄날은 아직

4월 CBSI 88.6 ... 10.2P 올라
이달 전망 96.8 기준선 100 안 돼

올 4월 건설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전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
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(CBSI)는 전월 대비 10.2포인트 상승한 88.6으로 집계됐다. 이는 앞선 3월 지수가 전월보다 6.4

포인트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.

CBSI는 대한건설협회 소속 일반 건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체감경기를 조사한 수치로 기준선 100보다 높을수록 현재 경기를 낙관하는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.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.

연구원은 이 같은 지수 상승세가 정부 추경안에 SOC 예산이 반영되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이 고조된 결

과로 분석했다. 또 이 시기 수주 물량이 일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. 다만 여전히 지수가 기준선을 밑돌고 있어 건설경기 회복점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.

한편 건설기업들의 이달 경기전망 역시 기준선에 못 미쳤다. 실제 이달 C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8.2포인트 오른 96.8로 집계됐지만 기준선에는 3.2포인트 모자랐다. 윤종현기자